

看護員과看護婦

간호원과 간호부! 무엇이 다르냐. 간호원이 간호부고 간호부가 간호원이지, 그런데 왜 우린 간호부란 소리를 들으면 온 신경에 썩심지가 들는지 모른다.

특히 신문, 잡지, 소설에서 간호부라고 쓴것이 보이면 우선 필자나 저자를 경멸하게 된다. 이것은日本人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구석 구석에서 보는 것 같은 차등과 함께 기껏 일본관이나 번역하는 자들이로구나 하는 경멸감이다.

어쩌면 외국영화 자막해설까지 알뜰히도 日人の 번역을 통한 번역인지 모르겠다. 국산영화에 가끔 심심하면 간호원이 등장한다. 물론 엑스트라 일때의 경우를 보면 이진 틀림없이 간호부다. 의사가 손을 딱고 있는 옆에 수건을 들고 서있는 장면, 멍청하고 부푹푹한 표정으로 환자를 부르고 산보하는 장면, 하는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우물쭈물하는 게으름의 표본 처럼 느린행동, 앞머리가 멋있게 흘러내려 눈을 가리울 정도의 「롱—웨이스타일」에다 그 켈슨 모양이며, 심지어 검은 스타킹에 어떻게 알아서 찾아 신은 흰구두, 꾸기

적 꾸기적한 흰 원피스(간호복)…… 아무래도 그 영화감독의 눈은 총천연색 렌즈인가 보다. 그런데 또한 꼴볼견은 삼오정이란 음식점엘 가보면 일하는 여자들이 흰 간호원 켈을 쓰고 있는거다. 아연 질색을 할 노릇이다. 그들을 보고 간호원이라고 할 사람이야 없겠지만 눈살을 찌고 바라볼 수 없는 풍경이다.

직업이 가지 가지고 보니 부르는 칭호도 가지가지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미스터」나 「미쓰」 등은 십여 년전엔 외국인 기관에서나 불리우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젠 어디서나 사용되고 있다. 무난하고 편리하도록 까지. 우리네 머더들이 양물에 익숙해진 증거다. 하기는 미국에선 「미스터」란 말이 대단히 짧고 격이 높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것이라 하니, 남자라면 붙여서 좋은 것으로 아는 우리네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여기다. 자기 보다 격이 높은 사람에게 「미스터」 누구라고 부른다면 오히려 돌지않았나 하는 오해를 받기 쉬울 뿐이다. 자기 보다 낮은 신분이거나 동등한 위치에서라면 주저없이 「미스터」를 붙여 주지만, 그

러나 아직 大部分 地方에 있는 기관에서는 「장군」, 「박양」이라고 부르지 절대 「미스터」나 「미쓰」를 싫어한다. 웬지 천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이 모두가 습관이겠지만 나로선 「이양」이라 부르면 성숙한 느낌이 없고 갓난애 취급같아서 역시 기분이 나쁠것 같다. 또 군대에선 남녀 구별보다는 계급이 엄하다. 밥 한그릇이 「넌」자를 좌우한다. 또 병원에서 볼것같으면 장씨성을 가진 의사에선 「장의사」, 「석간호원」이렇게 병원 분위기를 살려서 부르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Dr Yang”, “Miss Myung” 등 직업냄새를 덜 피우는 병원도 있고 어느 아동병원에선 환자 아이들이 간호원을 「엄마」, 의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아원을 갖춘 병원도 있다. 나면서부터 한면(一面)만을 소유할 수 없었던 人間들은 불러주는 상대에 따라 심경의 변화도 대단하다. 특히 自然 감정이 풍부한 女子들이란 더욱 그런걸 느낀다. 엄마라고 불리울땐 그실 엄마다운 마음과 행동이, 간호원이라 불리울땐 더욱 간호원답게, 상관이랄땐 또 더욱 상관다워 지려고 한다. 머구나 직업에 의해 붙여진 대명사 속에 살다 보면 그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이 어느듯 습관화 되어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버리고 만다. 그러기에 적어도 우리들 「간호원」이 느끼는 「간호부」의 「스타

일」은 다른 것인지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듯 스타인화해가는 人生에 비애를 느낀다. 두뜻 人間은 저마다 哀傷이 있는법이다. 奮와 명예가 온몸에 번뜩이는 사람이나, 등뒤에 얼은 아이의 목이 노상 달랑거리는 광주리 장수나, 이미 인간이란 이름밑에선 어쩔수 없이 虛妄함을 살아 볼수록 느끼게 마련이다. 우리가 간호원으로서 살아가는데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보람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하며 찾지못한 사람은 한시도 즐겁게 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는 그 고상한 희열은 현실이 주는 고달픔을 이겨 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生活人이기 때문이다. 生活人은 生活할 수 있어야 하는거다. 간호원이라는 것은 직업일 뿐이지 종교가 아니다. 생활할 수 없는 직업은 현실에서 환영 받을 수가 없다. 황금만능의 시대는 황금의 무게만이 人生의 희열과 가치를 배급한다. 이 희열을 배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출지여 기다리는 거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 희열을 배급받지 못하는 걸가, 그렇다 적어도 우리가 이 대열을 백하는 순간만은 그 값싼 희열을 배급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인류가 다같이 소망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현대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숭고한 정신을 유

산으로 받고자 이 때열을 택했고 또 유산으로 길이 남겨야 할 임무와 함께 이 때열에 서있는 것이다. 하지만 썩스 썩스와 스피드의 홍수속에서 「나 이팅게일」의 후예라서 눈물에 젖은 태양처럼 살아가는 수는 없다. 빛나는 태양이 아쉬운 거다 「第八曜日」에 나오는少女 「아그베시카」 처럼.

간호부라는 조상에서 태어난 간호원이 간호부를 싫어하는 것처럼 간호원이란 이름을 생대하고 구박할 새로운 이름의 그들이 보구시다. 발랄하고 자랑스런 그들이……,

〈간호장교 중위 제대〉
이 유 수

국제교환 간호원의 그후소식

대한간호 통권 11호에 교환간호원 전망에 대한 소식을 실어 회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이해와 생각이 있었을 줄 압니다.

본회로써는 회원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할것을 거듭 강조하며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계속 노력중에 있다는것을 밝힙니다. 미간호협회에서 보류중이던 7명에 대한 교환간호원 Program은 해제되어 현재 수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본회로써는 교환간호원 시험이 언제 있을꺼라는 사실을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번에도 강조한바 있지만 어학문제에 있어 특히 영어 실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서 해외의 진출한 우리 회원이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 외국어 연구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야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은 변하지 않을줄 압니다. 그런 뜻에서도 회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회에서는 Exchange Program Committee를 구성 하였습니다. 구성 member의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금전(전회장), 홍신영(연세대 간호학과 과장), 이귀향(서울대 간호학과 과장), 홍옥순(전회장), 강재욱(이대 간호학과 교수), 이혜정(본회실무직원), Miss Kingsley(연세대간호학과 교수), KMAG, 간호고문관, W.H.O. 간호고문관 으로서 구성됐으며 직책상으로 본회회장 이영복, 본회상임이사 김복음, 보사부 간호사업과장 황영희씨 등이 포함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와 좀 더 밀접한 유대를 가지고 본회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간호협회에서는 아직 만족할만한 회답은 없으나 이 Exchange Program이 잘 진행 될것을 본회로써는 낙관중에 있습니다.